의료법인 나눔과행복의료재단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Monthly

나눔과행복소식 (49호)

매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2026.05

미션
MISSION

사람을 봅니다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는 세상, 사람을 봅니다.

비전
VISION

비전 2030

삶 중심 의료를 실현한 선도병원

핵심가치
CORE VALUE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즐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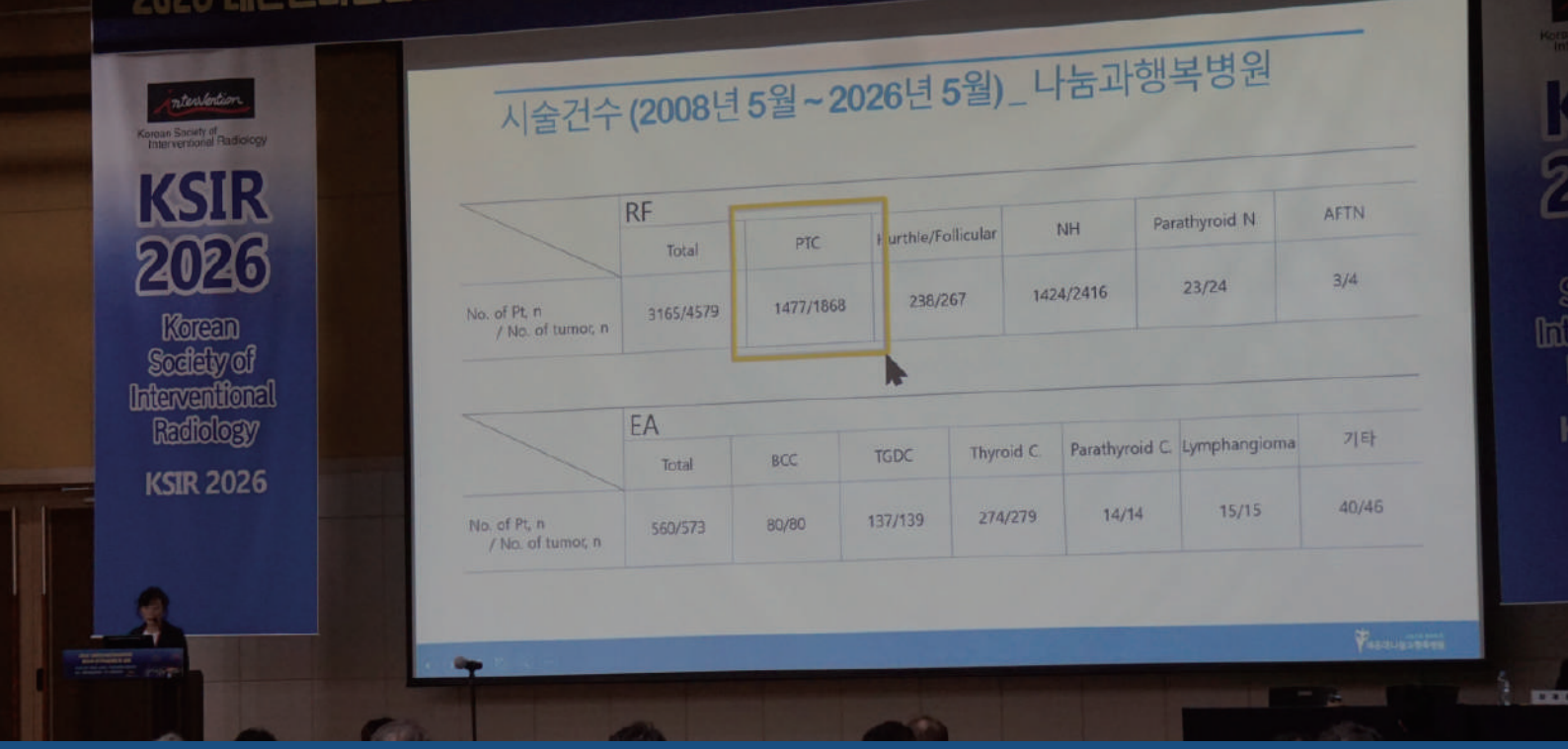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전문성을 근간으로 **진정성**을 담아, **공정함**으로 대하고 **함께함**을 느낄 때, **사회적책임**과 **즐거움**이 실현되는 곳!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우리 병원 실제 진료 통계를 바탕으로 한 치료 경험 공유’

백선미 병원장님,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서 갑상선암 고주파 절제술 발표 (05.16)

백선미 병원장님이 지난 5월 16일 토요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 제34차 정기학술대회에 참석해 「Basic for thyroid cancer ablation」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 정기학술대회는 인터벤션 영상의학 분야의 최신 치료 흐름과 임상 경험을 공유하는 중요한 학술 교류의 장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백선미 병원장님은 갑상선암 고주파 절제술의 기본 원칙과 치료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활용된 통계가 우리 병원의 실제 진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되었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병원 갑상센선타가 갑상선암 고주파 절제술 분야에서 축적해온 경험을 학술적으로 정리하고, 전문 학회 현장에서 공유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우리 병원의 진료 경험이 병원 안에 머무르지 않고, 학술 현장에서 함께 나누어졌다는 점에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이 쌓아가는 경험과 노력이 더 많은 배움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설렘의 시작에서 다짐의 순간까지’

2기 신입직원온보딩 이야기 (03.13~05.14)

3월은 해나행에 새로운 시작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2026년 2기 신입직원들은 사회 첫 출발을 시작하는 직원들이 많았기에, 이번 온보딩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함께 맞이하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담아 진행되었습니다.

낯선 환경 속 설렘과 긴장을 안고 모인 신입직원들은 자기소개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갔습니다. 함께 시작하는 동기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병원의 방향과 가치, 해나행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들을 공유하며 조직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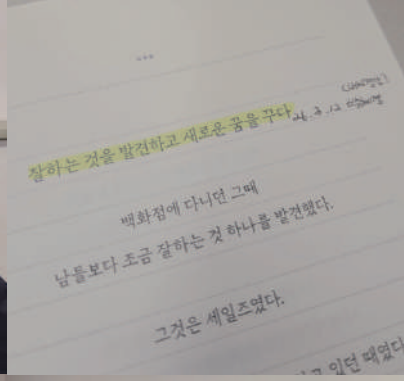
특히 새롭게 진행된 ‘해나행 필독서 소개’ 시간은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병원장님께서 추천해주신 책들을 통해 해나행이 추구하는 가치와 사람에 대한 마음을 함께 나누었고, 신입직원들은 각자가 선택한 책 속 문장들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다짐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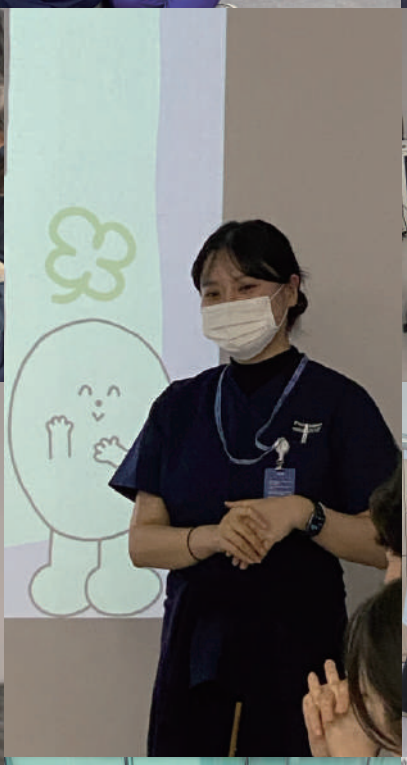
온보딩의 마지막 과정인 수료식에서는 단순히 교육을 마무리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 나는 어떤 직원이 되고 싶은가’를 스스로 돌아보는 비전수립 시간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신입직원들은 각자의 비전문을 작성하며 해나행 안에서 이루고 싶은 성장과 마음가짐을 진솔하게 담아냈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과 응원의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좋은 직원이 되는 것보다 오래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한 신입직원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설렘과 긴장 속에서 시작된 첫 만남이 서로의 응원과 공감으로 이어지고, 각자의 다짐과 비전을 품은 새로운 출발로 연결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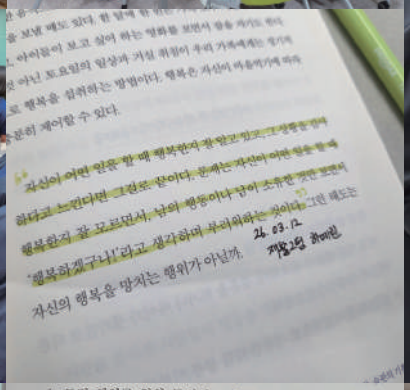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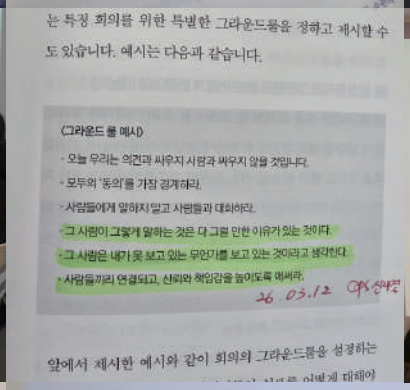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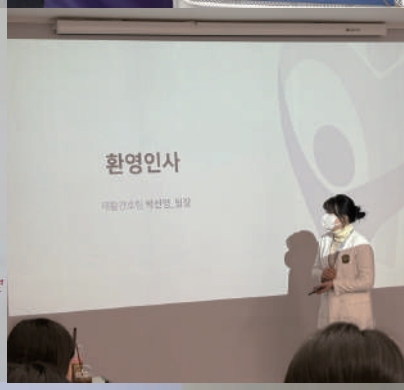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4기 신입직원온보딩_1차 OT (05.14)

4기 신입직원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맞이하기 위한
신입직원 온보딩 1차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과정은 새로운 환경에 첫 발을 내딛는 신입직원들이
해나행의 문화와 방향성을 이해하고, 조직 안에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신입직원들은 서로를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긴장감을
덜어내고, 함께 시작하는 동기들과 소통하며 조금씩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병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사람에 대한 마음을
함께 공유하며, 단순한 업무 적응을 넘어 '어떤 마음으로
함께 일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신입직원들은
해나행 안에서 함께 성장해간다는 의미를 자연스럽게 느끼며
조직의 일원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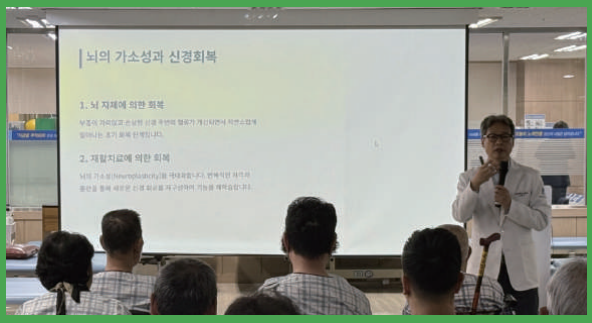
새로운 시작 앞에 선 신입직원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연결의
의미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슬기로운재활생활 (05.13)





5월 슬기로운재활생활 두 번째 교육은 김완호 원장님께서 '삶 중심 재활치료 : 뇌졸중 이후의 회복과 새로운 삶의 시작, 우리가 함께 걷습니다'를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뇌졸중 이후 회복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경재활의 원리와 운동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주셨으며, 뇌의 가소성 개념을 중심으로 반복적인 훈련과 적절한 재활치료가 신경회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밖에도 회복기 재활기간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기능 향상이 가능하다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약물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복 속도는 개인차가 있기에 타인과의 비교보다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과정이 중요함을 일깨워주셨으며 회복 과정과 치료 기간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으로써 재활치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질환에 따른 회복 방향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상재활센터(낮병동) 출석왕·자립왕 시상식 (05.08)



6층 일상재활센터에서는 매달 '출석왕'과 '자립왕'을 선정하여, 참여자분들의 꾸준한 노력과 자립을 향한 멋진 발걸음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4월 출석왕에는 김○한, 김○정 님이 수상하셨고, 자립왕에는 박○수, 김○희 님이 수상하셨으며, 시상식은 참여자분들의 환한 미소와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 즐겁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집단상담 마음톡톡 프로그램 (04.09~04.30)

4월, 마음톡톡 1회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젊은 연령대의 참여자들로 구성되어 또래간 공감과 상호지지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지만, 다 함께 모여 쵸니, 현누, 아구몬, 춘식이 등 나의 별칭을 짓고 회기가 거듭될수록 서로의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귀 기울이며 웃고 공감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변화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빠른 퇴원을 희망했던 참여자는 점차 회복기 재활의 필요성을 이해하며 낮병동 연계, 원룸 거주, 직업 복귀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되었고, 퇴원계획이 막연했던 참여자는 휠체어를 이용한 독립생활을 목표로 주거환경을 직접 구상하고, 장애인 체육선수 및 장애인식개선강사 등 향후 진로 계획을 세우며 주체적으로 사회복귀 목표를 구체화해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언어 및 인지장애로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보이던 참여자 역시 집단원들의 격려와 지지 속에서 점차 표정이 다양해지고 프로그램 외 시간에도 집단원이 함께 모여 언어 연습을 도와주는 등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회기에는 각자의 변화와 앞으로의 목표를 함께 나누고 수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퇴원이 아직은 막연하고 두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함께 방안을 탐색하고 응원하는 과정 속에서 재활치료에 대한 의지와 사회복귀에 대한 동기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마음톡톡, 이곳에서 나누었던 마음과 지지의 순간들은 앞으로도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회사업팀은 참여자들의 정서적 회복과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









웃음치료 프로그램 (05.02)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한국문화예술복지부 러브뮤직에서 웃음치료 시간을 위해 본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참여자, 보호자, 간병사 선생님들이 함께 어울려 노래하고 웃음으로써 마음속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 소소하지만 특별한 토요일을 선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6월 6일(토) 오후 3시 30분, 7병동 휴게실에서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휠체어스쿨 (0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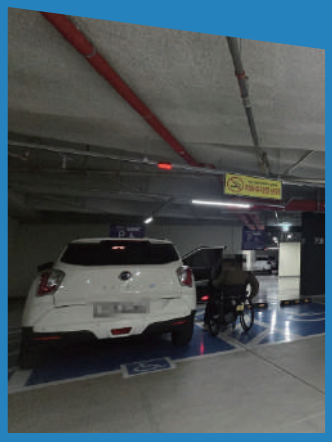




해운대블루라인파크 인근에서 휠체어스쿨에서 배운 스킬을 실제 환경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병원을 벗어나 보니 낮고 높은 경사, 눈에 잘 띄지 않는 턱, 울퉁불퉁한 도로 등 휠체어로 이동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교육 시간에 익힌 스킬들을 직접 활용해보며, 잘되는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점을 스스로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참여자분의 추천으로 경치 좋은 카페를 방문해 잠시 여유를 즐기며 기분 전환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퇴원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외부 활동은 일상 복귀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새로운 도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밖으로한걸음씩 (05.04)









퇴원이 얼마남지 않아 주거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다녀왔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주변 환경은 휠체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비교적 잘 조성되어 있었으며, 주차 공간도 여유가 있어 전반적으로 생활하기에 편리한 환경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거 내부 역시 혼자 생활하기에 적절한 규모였으며, 현관 턱과 주방 싱크대는 현재 상태에서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화장실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 일부 개선이 필요해 보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차근차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필요한 주거환경 개선과 활동지원서비스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참여자분이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환경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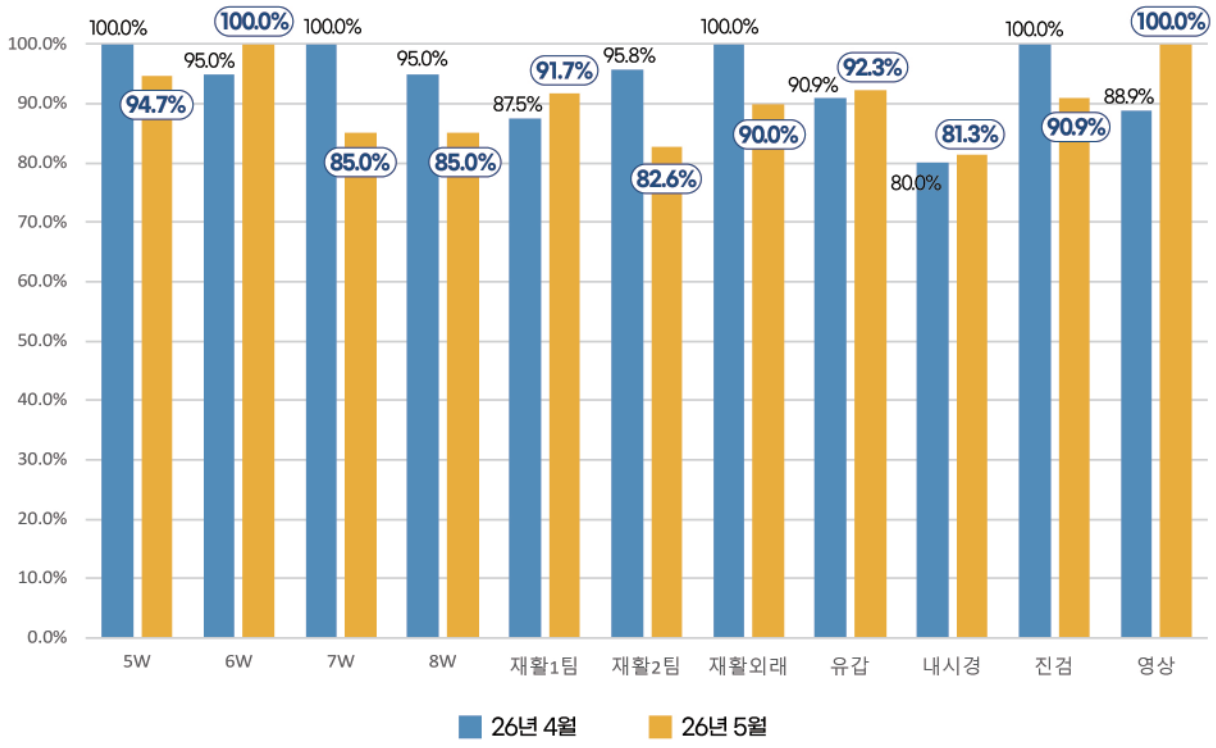
2026년 5월 손위생 수행률

손위생 수행률 결과	
모니터링 기간	2026년 05월 01일 ~ 2026년 05월 31일
모니터링 장소	환자 접점 부서
모니터링 방법	직접 관찰 (손위생 실무 요원 및 감염관리전담간호사)
손위생 수행률(%)	실제 손위생 수행 건수/손위생을 해야 하는 행위 건수 X 100
모니터링 결과	2026년 4월 결과와 비교 분석

지표 결과

목표(%)	전체 관찰건수(건)	수행건수(건)	결과(%)	전 분기 증감률
90	184	165	89.7%	- 4.1%

5월 부서별 손위생 수행률(%)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나행러닝크루 러닝이벤트
'온길런: 함께 잇는 길' (05.14)

5월 14일 목요일 오후 6시,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나행러닝크루 러닝 이벤트 '온길런: 함께 잇는 길'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우리 법인이 앞으로 '온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는 의미를 담아 마련되었습니다.
'온길'에는 온전한 길, 굳건한 길, 올곧은 길이라는 뜻과 함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과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길에 대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팀별로 정해진 시간 동안 달린 거리를 누적해 경쟁하며,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한 바람이 부는 날씨였지만, 함께 달리는 열기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는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온길런은 단순한 러닝 이벤트를 넘어, 나행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새로운 이름 온길로 이어갈 앞으로의 걸음을 함께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우리병원 첫 네이버 카페’

<갑상선암 고주파> 오픈 (04.30)

우리병원이 갑상선암 고주파 치료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네이버 카페
「갑상선암 고주파」를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번 카페는 갑상선암 고주파 치료를 고민하는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이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하고, 치료 과정에 대한 궁금증과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마련된 온라인 소통 공간입니다. 병원을 방문하기 전 느낄 수 있는 막연한 걱정과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필요한 정보를 따뜻하게 전달하는 공간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페는 우리병원에서 처음으로 개설한 네이버 카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카페를 통해 갑상선암 고주파 치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병원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카페가 신뢰감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직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도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실수록 카페는 더욱 활발한 소통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향후 다양한 정보 제공과 이벤트 운영에도 긍정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해나행 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가입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주변에도 많은 관심과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카페「갑상선암 고주파」
https://cafe.naver.com/koreathyroid

우리병원의 첫 네이버 카페가
갑상선암 고주파 치료를 고민하는 분들께
따뜻하고 유익한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네이버 카페
「갑상선암 고주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우리는 가족입니다.
05월의 신규입사자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_DAY6,「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오늘의 첫 인사, 첫 근무, 첫 하루가
언젠가 우리 병원의 좋은 한 페이지로 남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써 내려갈 날들을 환영합니다.


재활간호팀(8W) 양가연 간호사


재활간호팀(7W) 김혜원 간호사


재활간호팀(7W) 우나은 간호사


재활간호팀(8W) 박현주 간호사


재활간호팀(5W) 금미숙 간호조무사


재활간호팀(5W) 김보은 간호사


재활치료2팀 정윤서 작업치료사


영양팀 장영희 팀원

우리는 가족입니다.
05월의 신규입사자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_DAY6,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오늘의 첫 인사, 첫 근무, 첫 하루가
언젠가 우리 병원의 좋은 한 페이지로 남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써 내려갈 날들을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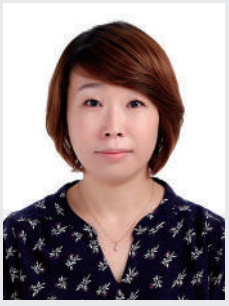

야간전담과 이상로 과장


재활간호팀(8W) 정은호 간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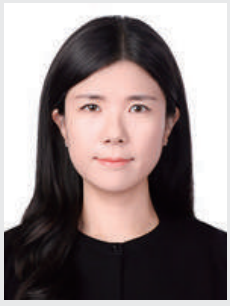

HR팀 안혜진 주무


심사팀 윤라온 팀원


재활간호팀(5W) 이서영 간호사


재활간호팀(6W) 이희옥 간호조무사


재활간호팀(5W) 정성희 간호조무사


재활간호팀(6W) 장지은 간호사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18회 생명나눔 명상 걷기대회 '휠체어 전달식' (04.25)



4월 25일 토요일,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에서 '희망세상 만들기 제18회 생명나눔 명상 걷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초읍어린이대공원에서 진행하였으며 걷기대회에 앞서 개막식에서 의료기관과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휠체어를 지원받아 간호간병통합병동에서 참여자를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치료비 지원 및 후원을 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미용 서비스 (05.22 / 05.26)

회사업팀에서는 입원 중인 참여자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매월 이미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총 78명의 참여자께서 서비스를 받으셨으며 4명의 전문 자원봉사자께서 재능 나눔을 실천해 주신 덕분에 많은 분들에게 큰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늘 변함없이 따뜻한 손길을 전해 주시는 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나행의 이름 모를 친절 직원!

칭찬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유방촬영 도와주신 4/9(목)12시경 근무하신 방사선사 선생님 성함을 모르겠네요. 머리 길고 하나로 묶으신 분이었어요. 불편하지 않게 잘 도와주셨어용!

채혈하시는 분들이 너무 친절하세요.

CT 촬영기사 선생님 매우 친절하게 설명함

(직원이름모름) 백선미담당 간호사 친절하시고 안내도 잘해주십니다!

재활외래에서 내과까지 한번에 예약을 해줘서 편했습니다. 재활외래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내시경 안내선생님(4/20 16시경) 친절히 내시경 전 준비사항 알려주셔서 처음하는 내시경인데 아무 걱정 없이 했습니다!

건강검진센터 직원 분인데 정말 친절하게 응대해주셨어요. 아주 기분이 좋아져서 추가 검사도 기꺼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름을 알고 싶은데 이름표가 없어서 아쉽네요. 검진센터 데스크에 코에 점 있으신 분 칭찬합니다!

채혈담당 오른쪽(키 큰) 심전도 담당 직원 분, 넘 친절하고 설명도 잘해줘서 고마웠습니다.(4/13 월)

내과 주사실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셨어요. 안경 끼신 분 … 그래서 다음날도 집 근처에도 병원이 있지만 또 방문했어요!

고혈압일지 몰라 불안해하는데 따뜻하게 다독거려주신 선생님 덕분에 무섭지 않았네요. 성함을 못봐서 건강검진센터에서 키,몸무게,시력검사,혈압검사 해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신수영 선생님 데스크에 계시던 선생님, 그리고 국가검진도 받느라 건강증진센터 쪽 가는 길에 헤맸는데 불러서 친절하게 알려주신 내과 데스크에 계시던 선생님들 ㅋㅋ 모두들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기존에 갑상선으로만 다니다, 추가로 질병이 생겨서 내분비내과도 병행하며 다니는데 내분비내과 선생님들이 모두 친절하셔서 너무 좋았어요. 최근에 방문한 병원 중에 제일 친근하시고 인상도 좋으시고 서비스가 너무 좋아요!

건강검진 과정 중 데스크 접수해주시는 직원 분.4월 23일 아침에 제일 먼저 출근하신 분. 너무 친절하셔서 검진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채혈 당담하시는 나이 조금 있으신 여자선생님도 너무 정답고요~ 특히 시력 혈압 재주시는 직원분 너무 이쁘시고 친절하시고. 다들 너무 친절하셔서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

김현수 선생님 방 앞에 계신 간호사분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주셔서 좋았습니다.

가정의학과 직원 분이 친절하십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서영화선생님 갑상선 접수받는분, 처음 방문에 친절하게 해주셔서 마음이 편하고 좋았습니다.

10년 정도 건강검진 하는 곳인데. . 친절하시고 만족하고 있어요. 안내하시는 분이나 청소하시는 분들 정말 친절하세요

임상병리과 선생님 친절하고 예쁘셨어요~

갑상선과분들 항상 친절히 응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 가득 감사글 남겨주신 고객 분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직원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달의 칭찬 직원들

갑상선유방센터 신수영 과장

신수영 선생님께서 꼼꼼히 잘 살펴주시고 설명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처음에 타병원 진료 후 안좋은 결과를 듣고 힘들고 불안한 마음으로 내원하였었는데 신수영 원장님의 꼼꼼하신 진료로 정기검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갈때마다 늘 편안하고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수영 원장님 담당 간호사 분들도 너무 좋으셔요^^)

갑상선유방 센터 모든분들이 친절하셨고 신수영 선생님께서도 꼼꼼히 초음파 봐주시고 설명도 잘 해주셔서 막연한 두려움을 안고 병원에 갔다가 한결 마음 편하게 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유방 건강검진차 방문했는데 신수영선생님 설명도 친절하시고 간호사분도 친철하셨어요.

유방내과 신수영 선생님 전문성과 친절함 기억에 남음

신수영선생님 넘 좋으세용!

유방 초음파와 진료를 해 주신 신수영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나 저의 상태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성함은 잘 모르겠으나 접수와 검사 안내를 해주신 간호사 선생님도 안내와 설명을 잘 해주셔서 주변에 친구들이나 가족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약 전 임파선이 걱정되어 내과진료 봤었는데 신센터장님께서 걱정을 싹 덜어 주셨습니다.

꼼꼼하고 정확한 진단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수영선생님 늘 꼼꼼히 진료해주셔서 신뢰할 수 있고 고맙습니다. 직원분들 늘 친절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유방 진찰의 신수영선생님의 자상하고 전문성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갑상선유방센터 손정민 부장

손정민 의사선생님의 목소리가 편안해서 좋았습니다

손정민 원장님 친절하게 상세히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정민 선생님 최고예요!!

갑상선 유방과 담당 손정민선생님 친절하시고 꼼꼼하시고 너무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방문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좋아보였습니다! 더 발전하는 병원이 되길 바랍니다.

손정민 원장님께서 진료를 잘 해주셔서 항상 믿고 갑니다.

손정민 선생님 불안한 환자에게 편안하고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갑상선유방센터 백선미 원장

원장님 진료 친절한 모습

백선미 원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책 선물도 해주셔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세밀하게 친절하게 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선미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이 마음에 남습니다 귀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늘 한결같이 친절하게 진료 · 상담 해주신 백선미쌤 감사하고 · 대부분 간호사분들도 친절해서 다른병원보다 편안하고 좋은분위기예요.

수술에 대한 긴장과 압박이 있었는데 백선미 원장님의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에 많이 편해지고
수술후에도 운동 · 식이요법등의 케어등 관리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상담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영상의학과 백선미 원장님의 초음파 진단 결과를 쉽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과 고주파 절제술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병실에서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을 설명해주신 선생님 또한 감사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이후 갑상선 고주파절제 연구 및 치료실적을 정리하여 벽면에 게시하여 놓은 것에
많은 신뢰를 갖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두번째 방문하는 병원이지만 원장샘 결과에대해서 친절히 설명해주시고 간호사샘들도 친절이 응대해주셔서 불만없이 오늘도 검사 잘 받고 돌아왔습니다.

여러 환자분들 맞이하면서 늘~~ 웃는얼굴로응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백선미 원장님 따뜻하고 상세한 진료 감사드립니다. 실력도 인품도 최고세요!!
멀리까지 찾아간 것, 검사결과가 좋지 못했던 것, 뭐 하나 아쉽고 후회되는것 없이 백선미 원장님께서 있어주셨던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천해주신대로 태경교수님께 반절제 받기로 하였어요.
원장님 일과 건강과 일상에도 환자들에게 주시듯 행복과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시고 백선미병원장님은 유튜브에서본 모습그대로 편안평온하시고
제가 열심히 치료하겠다는 말씀에 신뢰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일반 병원 치료와 비교 자체가 안되는
고주파 절제술하시는 나눔행복병원자체가 대단하신 일을 하는 것 입니다.
제가 도움 받은 만큼 아니 그이상으로 고주파절제술 전도사가 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 받는 것에 일조할께요. 감사드립니다.
백선미 병원장님께서는 병원 곳곳에 적힌 문구처럼 사람을 보는 의사선생님이셔서 아무 걱정 없이 믿고 맡길 수 있었고
한마디 한마디 인상깊은 말씀에 치료를 넘어 마음까지 위로 받고 귀가합니다. 그밖에도 모든 직원 분들께 감사합니다!

갑상선유방센터 김현수 과장

유방과 김현수 쌤과 직원쌤 모두 친절하셔서 매우 좋았습니다. 다른분께 추천하겠습니다.

김현수선생님의 꼼꼼한 진료와 자세한 설명에 만족합니다.

의사선생님도 친절하시고 직원분들도 친절하셔서 불편없이 진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현수 선생님의 차분한 설명과 진료 과정의 친절한 말씨가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게 해 주셔서
아주 만족한 진료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의사선생님(김현수) 간호사 선생님 두분 친절하게 대해 주셨음

내과내시경센터 정민정 과장

정민정 선생님 친절하시고 잘 설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화기내과 정민정선생님 항상 친절하시고 마치 저의 주치의처럼 자상하게 관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인소개로 정민정 내과 선생님 진료하였는데 너무 친절하시고 설명도 잘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내과내시경센터 류승훈 부장

류승훈과장님 오늘 처음 진료를 받았는데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며 기타 잡다한 상담에도 만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과의 간호사선생님들도 모두 매우 친절했습니다.

소화기내과.류승훈선생님 늘 항상 감사합니다. 가정에 늘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친절히 맞이해주신 소화기내과 간호사님께도 감사합니다.

직원들과 의사 선생님 모두 정말 진절함

내과 류승훈부장님과 내과 류승훈부장님을 연결해 주신 내과 카운트 여선생님 두분의 친절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의사 선생님은 바쁜 와중에도 친절히 끝까지 저희 얘기를 경청해 주었습니다. 매우 만족합니다

심장내과 박민아 과장

심장내과 박민아선생님 설명도 상세히 잘해주시고 환자의 사소한 이야기도 귀 기울여주시는 점이
저의 심신과 정신적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선생님의 진료를 받고 오면 마음이 안정되고 병이 금방 나을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내분비내과 성가연 간호사

내분비내과 간호사 선생남의 친절하고 상냥한 설명과 안내가 매우 인상 깊었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분비내과 외래 간호사님 친절해서 좋음

원무팀 김대용 파트장

원무과 김대용 직원의 친절함과 성의있는 설명등이 특히 좋았구요. 검사실 모든분들의 친절함도 좋았어요.
참 좋은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상선유방센터 김민정 간호사

김민정 간호사님 매우 친절합니다.

가정의학과 황은교 과장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특히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인상깊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내과내시경센터 남지현 과장

남지현 선생님 친절하시고 잘 설명해 주십니다.

의사 선생님 친절하시게 잘 알아들을수 있게 설명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남지현 선생님~

피곤한 모습이 보임에도 미소띤 얼굴로 자세하게 설명 해주시는 모습이 조금은 안쓰럽기도~~또 뵙겠습니다.

남지현과장님이 환자 얘기를 잘들어주셨습니다.

내과 남지현 선생님의 전문적이고 소신있는 설명

건강증진센터 최지윤 팀장

건강검진하는 동안 친절하고 신속한 안내 덕분에 마음 편하게 검진을 잘 받고 왔습니다.

내과내시경센터 조정희 간호사

소화기내과 조정희 선생님 너무 친절하시고 설명도 잘 알아듣게 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과내시경센터 고인영 부장

모든 간호사님들의 응대가 너무 친절하셨습니다 특히 소화기 내과 데스크의 간호사님들께 감사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여쭈었는데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인영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내과 고인영부장님 친절 하시고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단검사팀

진단검사(?)의학과에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채혈, 심전도검사)이 너무 친절하셔서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채혈해주시는 두 선생님) 기계적인 친절함이 아니라 진정한 친절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대기 중에 봤던 장면인데 다른 환자 분들께도 다정하게 말 걸어주시고,
연세드신 분들께 진심으로 친절하셔서 제가 다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단검사(?)의학과 선생님들이 가장 바쁘시던데 가장 친절하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센터

건강검진센터 직원분들 모두 친절하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건강검진 접수할 때 어떤 검사를 해야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는데 기다려주시고 또 직접 알아봐주셔서 잘 해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단검사팀 김수경 파트장

채혈 김수경샘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불안감을 덜어주었고 내시경실 접수하고 설명하는 곳 간호사샘들도 친절했습니다.

갑상선유방센터 박소리 간호사

수술 전부터 끝까지 소리 간호사 선생님이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친근한 마음에 긴장이 풀릴 수 있었습니다!

[공지] 의료법인으로 온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날

병원장님 말씀(04.30)

안녕하세요, 백선미입니다.

오늘, 2026년 4월 30일.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이 의료법인으로 온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날입니다.

지난해 6월, 법인 설립을 결심한 그 순간부터
설립허가, 등기, 사업자등록,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꼬박 10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보이지 않는 긴 여정을 쉼 없이 달려온 끝에 맺어진 결실입니다.

외부의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 앞이 잘 보이지 않던 순간들
속에서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함께 그려가며
예상치 못한 변수 앞에서
이 여정을 묵묵히 이끌어온 법인전환 TFT 분들이 계십니다.

간호, 총무, HR, 전산, 재무, 원무, 검진, 진검, 영양, 약제, 홍보, 심사, 그리고 사무처에 이르기까지,
다함께 수많은 변수 속에서도
단 한 순간의 의료서비스 중단 없이 오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온전한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의료법인은, 개인병원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우리가 지향해온 미션을 더 넓고 깊게 펼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사람을 봅니다'라는 그 마음을 오래도록 지켜내고,
병원의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더욱 단단히 해가는 길
그 길을 지금까지처럼, 함께 걸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방향을 잘 지켜가는 것.
제도와 시스템을 완성시키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더불어, 향후 명칭에 대한 최종 확정 사항을 공지해 드립니다.

재단과 병원의 정식 명칭은 '의료법인 온길의료재단'과
'나눔과행복병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올해 중에 변경 절차가 한번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명칭에는 우리가 지향하는 의료의 본질과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온길의료재단'은 우리의 변함없는 미션인 "사람을 봅니다"를 향해 걷는 온전한 길이자, 어떤 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굳건한 길, 그리고 직원, 환자, 지역사회의 행복을 향해 방향을 잃지 않는 올곧은 길을 의미합니다.

또한 '나눔과행복병원'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 그대로, 나눔을 통해 직원, 환자, 지역사회 모두가 행복해지는 병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이 가리키는 바른 방향을 향해, 환자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여정을 함께 이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백선미 드림



인생 드라마가 묻는 내 인생 목표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 편이지만, 인생 드라마들은 몇 편 있습니다.
대왕세종, 뿌리깊은나무, 나의 아저씨, 미스터 션샤인, 멜로가 체질, ...
'대왕세종'은 오로지 세종을 향한 지극한 애정으로 86부작을 의무적으로 완주했다면, 나머지는 꽤나 울림있는 수작들입니다. 덕분에 드라마 작가라는 사람들을 존경하게 만들기도 했죠.
최근에 하나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나의해방일지'로 신선한 충격을 줬던 작가의 작품이라고 하네요. 당시 '나의해방일지'라는 타이틀만으로도 상당한 기대감을 만들어 내는 포스가 느껴졌지만, 이번 '모자무싸'라는 타이틀은 흡사 소설가 김훈의 에세이 <밥벌이의 지겨움>에다가 MJ 취향까지 고명으로 올린 듯한, 정말 제목부터가 엣지 그 자체.

전작이 그러하듯, 상황 설정이나 캐릭터의 비현실성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전작이 그러하듯, 찰진 대사와 재미진 캐릭터로 개연성 부족한 서사를 만회하고도 남는 독특한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를 보다보면, 이 드라마, 혹시, 인생 드라마가 될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참 아끼고 싶다는 마음 같은 게 생기는 거죠. 전조 신호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신호는, 탁월한 작가의 책을 읽다가 작품과 사랑에 빠질 때 나타나는 공통점을 관찰하면서 나름 정립할 수 있었는데요, 드라마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첫째, 목욕재계, 운기조식 후에 본다는 겁니다.
피곤할 때 피로회복제용으로 탐닉하는 류가 아니라는 거죠. 몸과 마음의 감각이 최상급일 때, 그때서야 진도를 나갑니다. 어쩔 땐 한 줄, 혹은 한 단어에서 길어올릴 수 있는 공명이 있을 진데, 내 몸과 마음의 민감도가 떨어져서 그걸 놓치고 지나쳐버리면 얼마나 아까운 일이겠습니까?
보통 책이나 드라마는 출퇴근 지하철 안에서 많이 보는데, 사랑에 빠진 책이나 드라마라면?
안되죠. 내릴 역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 쪽 신경을 곤두세우거나, 환승역처럼 갑자기 사람들이 쑥 내리거나 타면서 밀려다니다 보면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둘째, 보다가 자주 멈춥니다.
방금 본 장면이나 대사에 대한 소화가 드라마 속도를 못 따라 갈 때, 이대로는 다음 장면, 다음 대사를 받아들일 수 없겠다 싶으면, 어쩔 수 없이 포즈를 누르고 머릿속 정리를 좀 하고 다시 플레이를 누르는 스스로를 발견합니다.

세째, 끝이 궁금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러티브에 매료되기 마련이고 서사를 짐작할 수 있는 복선에 현혹되면서 작가가 의도한 방향으로 쥐도새도 모르게 빨려들어가는 게 드라마타이즈의 특징입니다. 어쩔 땐 그 끝에 대한 짐작과, 그 짐작과는 다른 반전의 긴장감이 만들어내는 힘에 무릎을 탁 치기도 하죠. 허나 작품과 사랑에 빠지면 도대체 어떤 결말로 흐를까, 라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게 생기게 됩니다. '제발 끝나지 않기를...'
이 사랑스런 캐릭터들과 헤어지기 싫다는, '이거 일종의 관음증인가' 싶기도 한 그런 마음이 말이죠.

네째, 와 닿은 몇 개의 장면들은 제법 생생하게 머리속으로 재현이 가능해집니다.
사람마다 도파민 터지는 장면들이 다를 순 있겠지만, 저에겐 모자무싸 6화에 나오는 밥 먹는 장면이 그랬습니다. 이런 장면은 거의 프레이밍부터 컷 길이, 대사와 대사 사이의 밀도까지 다 기억이 납니다. (이건 작가의 힘에 연출의 힘이 더해져서, 이미 최상의 씬을 만들었고 더이상의 변형이 불가능하거나 고치는 게 의미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예의 그 밥 먹는 시퀀스는,
아직 12년 째 데뷔 못한 찌질한 감독 지망생이자 이 바닥(충무로?) 고인물 남주와
한때 시인이었지만, 상처때문에 사회와 연을 끊고 여기저기 지방 막노동판을 떠도는 용접공이자, 찌질한 지망생의 형.
그리고 찌질한 지망생과 썸을 타고 있는, 사무보조로 영화투자사에 취직했다가 지금은 회사로 보내오는 수많은 시나리오를 미리 검토하고 될성 부른 가능성 판단(과 수정이 필요한 지점에 대한 정확한 지적질)으로 정평이 난 여주 PD,
이렇게 세 사람이 다이소에서 샀을 것 같은 밥상에 앉아 어색하게 밥을 먹는 장면 되겠습니다.
찌질이의 형과 여자주인공은 이날 첫 대면이죠.
밥은 먹지도 않고 소주잔만 기울이던 형이 갑자기 여주를 향해,

“인생의 목적이 뭐야?”

정적이 흐르죠. 썸남에게 형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크고 무섭게 생긴데다 친절은 커녕 초면에 반말지껄이, 게다가 내내 아무 말도 없이 사람 불편하게 밥도 안먹고 소주만 마시다 한다는 소리가, 심오하기 그지없는 존재론적 질문이라니...
이 순간, 당연히 누구라도, 멍해지죠? 입에 젓가락을 문 채, 동그래진 눈으로 쳐다보는 여주를 향해 다시,

“아니~, 어떤 인간이 되고 싶냐고? 성공 그런 거 말고”

충격입니다. 일개 TV드라마 주제에 어떻게 이런...

이 드라마를 같이 봤던 제 주위 몇 분은, 이 난해한 질문에 대한 여주의 대답이 참 울림이 크다는 감상평이 많았는데요, 일단 생략.
(실은 대사가 주는 울림을 설명하자니, 복잡한 그 전편들의 서사를 인용해야 하는 귀찮음이 확 밀려와서... 여기선 차분하고 조용한 여주 캐릭터가 실은 아주 단단한 사람임을 보여주고자 채택한 서술어, 예를 들어 ‘~라고 생각합니다’ ~가 되려고 합니다’가 아니라 ‘~가 될 겁니다’ 같은 걸 사용한 정도만 밝히고 넘어갑시다)

답도 답이지만, 제가 제대로 꽂힌 지점은 질문, 두 문장에 있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란, 결국 ‘어떤 인간’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는, 너무나 확고한 단정.
난해할 것 같은 철학적 담론의 위상 따위 잘근잘근 씹어주는 저 당돌한 치환이란, 흡사 클린턴 선거캠프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카피로 모든 이슈를 순식간에 하위 프레임으로 추락시켰던 것처럼...
그렇군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니, 조국 통일이니... 뭐 그런 게 아니라,
되려고 하는 어떤 인간상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근접해 보는 거라는,
더 이상 이걸 두고 설왕설래 할 필요나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선언같은,
‘이걸로 하는 거야, 딴 소리 하기 없기.’ 뭐 이렇게 말하는 듯한...
작가는 그 선언에 부연 따위를 더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건 마치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류의 절대명제와 같은 거라는 걸 강하게 밝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럴 땐, 포즈 버튼을 누를 수 밖에요^^
(이삼일이 지나서야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누를 수 있었죠)

여주는 5초만에 대답했지만, 저에게는 (답을 찾는데) 2~3일이 필요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뭘까? 완성은 불가하더라도 근접하려는, 어떤 인간상이 내 궁극의 목적일까?'
그리고 '정말 목적을 향해 충실하게 살아 가고 있나?'.
바쁜 일상에선 잠시 잊고 있다가도 자려고 눕기만 하면 다시 내 머릿속을 채우는... 무슨, 드라마 대사 하나가...
작가 박해영은 도대체 뭐 하던 인간인 건지...

그러던 어느날, 답을 내렸습니다.
애써 대단한 인간상을 찾을 게 아니라는 결론, 내 인생의 목적은, 되고 싶은 인간은 '어제보다 더 나은 나'로.

네, 압니다. 답이 좀 허망하죠?
너무 당연한 결론에 이삼일을 허비한 걸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고작 찾은 명제가 이거야 싶은.
하지만 전혀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착륙하는 동안 고민한 시간은 이미 저를 조금은 '더 나은 인간'으로 변화시킨 것 같았거든요.

작가처럼 부연없이, 멋지게 딱, '선언'이란 걸 해 보고 싶지만, 그럴 재간이 없는 범부라, 위의 답에 대한 몇 가지 지저분한 부연을 할 수 밖에 없네요.
하나는, 사람은 변한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은 내가 된다'는 건, '사람 안 변한데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냐~' 라는 어른들 말씀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가능하다는 것.
충격을 받거나(드라마로부터든, 훨씬 실제적이고 위험하고 해로운 어떤 것으로부터든), 노력하면,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해도 주관적이겠지만, 나름 '더 나은'의 비교 기준과 근거를 갖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제 기준은 저 자신입니다. 지금의 내가 아니라 내일의 나 아니면 몇 십년 뒤의 나.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100세의 나를 기준 삼는다면요? 그의 눈치를 보며 오늘을 산다면요?
한 50년 정도의 경험을 가진 나는 100세의 내가 보기에 한참 어리고 멍청하고 오류 투성이겠지만, 경험이 일천하니(산 날로는 딱 절반 밖에 안되니) 그 정도면 봐줄만하다는 생각으로 너그러이 볼 것 같지 않나요? 딱 그 나이의 경험과 지혜 정도에 어긋나지 않는 생각, 행동, 말, 태도, 관계, 의리를 밑천으로 살아가겠지만 100세의 내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는 느낌으로, 눈치보며 사는 삶은 그렇지 않았을 때와는 다르지 않을까요? (더러 20대의 제 모습을 떠 올리다 기절초풍할 만큼 부끄러워서 나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새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뭐 아직 50세라서 100세의 그가 가진 너그러움까지 갖추지 못한 때문이겠지만,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운 20대의 제 모습이란... 그땐 더 나은 인간이 되자는 생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즉 완성까지 한참 멀은 어설픈 인간이라는 자각도 못하고 이미 완성된 양 살았죠. 고로, 그때보다는 조금은 더 나은 인간이 된 것도 같은... 30년의 발전 치고는 아주 찔금 나아진 게 흠이긴 해도, 제 인생의 목적, '어제보다는 더 나은 인간'에 아주 어긋나게 살지는 않았다는... 식의 구차한 자기합리화도 좀 해 보게 되네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제법 오래 전부터, 직장을 선택한다든가, 중요한 어떤 일을 할지말지 결정해야 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 그 일은 '남은 인생에 예의를 지킬 수 있는 일인가?'

열린결말 세 번째 이야기
브랜드 이야기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03

어쩌면 인생의 목적, 그러니까 최소한 어제보다는 더 나은 인간이 되겠다는 목적은 이미 수립해 놓고 살았던 게 아닐까, 라는 결론을 이삼일 동안 찾아냈다는 뜻, 상당히 건방지지만 말입니다.

남은 문제는 이걸 실천하는 거겠습니다.
이렇게 살자면, 지극히 '나를 사랑해야 한다'가 방법론으로 설정 되더라구요.
뭐든 사랑하면 열정적으로 하잖아요? 더 나아진 내가 어제의 나보다 더 사랑스럽다면? 내가 더 나은 인간이 되어가는 모습이 사랑스러워 죽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래야 의무감이 아니라 기꺼워서 하지 않을까... 지치지 않고 연속성도 보장되지 않을까...

같이 사는 분께 답을 찾았다고, 나를 더 사랑하기로 했다고 그러자,
"당신만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당신은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 거 같애."
(지금 생각해보니 이때, "그래 나도 알아, 나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 같아, 하지만 두번째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 알지?" 정도의 멋진 말을 했어야 하는데... 멍청하게 "그런가?" 해 버렸다는...)

50년 뒤에 도착해 있는 나를 닮아 가려고, 그의 눈치를 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낸다면, 분명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 고작 50년 밖에 경험이 없는데, 괜찮다, 그 정도면 좋은 생각이다, 아직 배울 게 더 많아서 그래, 완성되지 않아서 그런 거다, 하며 자신을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기분입니다.

제게 추가된 인생 드라마 제목은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지만,
그다지 드라마틱 하진 않을 것 같은 제 인생의 제목은
"모두가 100세의 자신에게 눈치보며 싸우고 있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피곤에 찌든 나날의 연속이라, 7화 이후를 도전할 몸 상태를 전혀 못 만들고 있네요.
찌질이 감독지망생과 투자사 PD를 빨리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과, 아껴서 조금씩 보고 싶다는 마음이,
지친 뇌 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브랜딩실
권용협 실장

‘손끝으로 맛을 수놓다’ 나행밥상 서른 번째 이야기

참여자 분들께서 요청해주신 메뉴를 선정하여 정성껏 차려드립니다.

30

‘나행밥상’은 매월 참여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하시는 메뉴를 선사합니다.

미역국 정식

“엄마가 생일날이면 꼭 끓여주던
그 미역국이 떠오른다”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면서
엄마가 생일날이면 꼭 끓여주던 그 미역국이 떠오른다는
이야기를 들려 주셨습니다.

그 소중한 추억에 닿고 싶은 마음으로,
미역국을 유난히 정성스럽게 잘 끓이는 우리 영양팀이
이번 달 요청 메뉴로 ‘미역국 정식’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래 끓여 깊고 담백한 미역국 한 그릇에
입맛 돋우는 묵은지 찜닭,
은근히 중독적인 갈릭마요미트볼,
그리고 산뜻하게 균형을 잡아주는 컬리야채볶음까지 더해
한 숟갈, 한 입마다 “ 아, 이 맛...”하고
자연스럽게 미소 지어지는 한상이 완성 되었습니다.

어버이날,
그때 그 기억처럼,
문득 누군가가 떠오르는 순간에,
그 따뜻함이 고스란히 전해지도록
한 그릇의 미역국에 사랑을 듬뿍 담아 전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영양팀은
한 끼의 식사에도 설렘을 느끼고
추억을 떠 올릴 수 있도록
손끝으로 추억의 그 날을, 그 맛을
식탁 위에 펼쳐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추억을 요청해 주세요.



영양팀장의 말,말,말

카카오워크에서 전한 글입니다. (05.15)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해

> 나는 한 번도 오늘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
> 하루하루를 미래의 일부로만 사용했다.
> _최서영『어른의 품위』p.27

몇 페이지를 읽다 이 문장을 만난 순간,
괜히 냉장고 문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먹어야지’하고 아껴두었던 것은 없는지ㅎㅎ

좋은 날, 특별한 날을 위해 꼬불쳐 두었던 간식들ㅋㅋ
그런데 막상 생각해 보면 좋은날,
특별한 날은 늘 내일로 미뤄져 있습니다.

오늘이야 말로 가장 확실한 기념일 아닐까요?

‘언젠가’를 위해 ‘지금’을 아껴두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해 준비된 맛들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한입에도 기분이 환해지고,
평범한 하루가 조금은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냉장고 대방출~!
영양팀이 오늘의 특별함을 함께 채워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무섭다

평생 보호자로 살았던 엄마가
처음 환자가 되던 날

내가 자라는 동안 엄마는 한 번도
수술을 한 적이 없다.

병원에는 자주 갔다.
의원에도 자주 갔다.
무릎이 아프다며 외래를 다니고,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받고,
약봉지를 받아 오는 일은 자주 있었다.

하지만 수술은 없었다.

수술이라는 말은 늘 아버지 쪽에
있었다.
입원이라는 말도, 보호자라는 말도,
검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말도.

아버지가 여러 번의 수술과 입원 끝에
생을 다하기 전까지, 어머니는 늘 그
곁에 있었다. 병실 의자에서 자고,
보호자 침대에서 뒤척이고, 간호사
호출벨 소리에 먼저 일어나고, 의사의
말을 놓칠까 봐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

그때 내게 엄마는 환자가 아니었다.
언제나 보호자였다.

아픈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밥을 챙기는 사람.
서류를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
밤새 제대로 자지 못하고도 아침이면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사람.

그래서였을까.
나는 엄마가 수술대 위에 눕는 장면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무릎이 오래전부터 안 좋다는 건
알았다.
걸을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는 것도
봤다.
계단을 내려올 때 한쪽 손으로 난간을
꼭 붙잡는 것도 봤다.
그래도 엄마는 늘 참았다.

주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한쪽만 해라."
"양쪽 같이 하는 게 낫다."
"최대한 늦춰라."
"할 거면 빨리 해라."

그 말들 사이에서 어머니의 마음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마치 바람 부는 날 빨랫줄에 걸린
수건처럼. 이쪽으로 펄럭였다가,
저쪽으로 뒤집혔다가.

작년에는 추석만 지나면 하겠다고
했다.

명절 제사는 지내야 한다고 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밥 한 술이라도
뜨시지 않겠냐고.

나는 그 말이 조금 답답하면서도, 조금
엄마답다고 생각했다.

무릎이 아픈 사람도 제사를 먼저
생각한다. 수술 날짜보다 돌아가신
남편의 밥상을 먼저 떠올린다.
자기 통증은 조금 더 미뤄도 되는
것처럼 말한다.

그렇게 또 한 해가 넘어갔다.

엄마는 수술하지 않았다.
꾸역꾸역 버텼다.

아픈 다리로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고, 집 안을 오갔다.

나는 본가와 가까운 곳에 산다.
가끔 퇴근길에 들른다.
그러면 그녀는 꼭 무언가를 들려
보냈다.

김치.
나물.
멸치볶음.
금방 무친 겉절이.
아직 따뜻한 국.

엄마의 무릎은 아픈데, 엄마의 손은
계속 움직였다.

나는 그것을 너무 오래 당연하게
여겼다. 엄마가 아파도 반찬은 생기는
일. 엄마가 절뚝거려도 내 손에는
봉지가 들리는 일. 그게 사랑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랑을 받는 데 너무
익숙했다.



올봄, 어머니의 무릎이 갑자기 더
나빠졌다.

이번엔 달랐다. 말투가 달랐고, 걸음이
달랐고, 얼굴이 달랐다.
엄살을 모르는 사람이 더는 못
참겠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외래를 보고, 수술 날짜를 잡았다.

덜컥.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어집니다>

홍보팀장의 '브런치' 마흔여덟 번째 이야기

브런치는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입니다.

48

수술 날짜라는 건 왜 그렇게 잡히는 순간 현실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전까지는 말이었다.
언젠가 해야지, 하는 말.
이번엔 해야 하나, 하는 말.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는 말.

그런데 날짜가 생기자 모든 게 일이 되었다.

입원 준비.
검사.
보호자.
수술 동의서.
마취 설명.

그리고 엄마의 두려움.

수술을 앞두고 걱정하는 당신에게 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마취 끝나고 깨어나면 끝난다던데."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기에.
이미 다 아는 사람처럼.
수술이라는 게 결국 순서대로 지나가는 절차라는 듯이.

그러자 엄마가 말했다.

"그래도 무섭다."

그 말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멈췄다.

그래도 무섭다.

너무 짧은 말이었다. 그런데 그 짧은 말 안에 엄마가 다 들어 있었다.

평생 아버지의 수술을 지켜본 사람.
입원실에서 보호자로 살았던 사람.
자기 차례는 최대한 뒤로 미루던 사람.
무릎이 닳도록 참다가 이제야 수술대에 눕게 된 사람.

그리고 그냥, 무서운 사람.

나는 그제야 알았다.

엄마도 무섭구나.
어머니도 겁이 나는구나.
누군가의 보호자였던 사람도, 막상 환자가 되면 무섭구나.

엄마는 내게 늘 겁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수술 앞에서는 겁이 없어야 할 사람처럼 생각했다.

아버지를 그렇게 오래 간병했으니까.
병원 생활을 많이 겪어봤으니까.
주사도, 검사도, 의사 말도 익숙할 테니까.

하지만 익숙한 것과 무섭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다.

수술 전날, 반차를 쓰고 입원 수속을 밟았다. 검사를 하고, 설명을 듣고, 병실로 올라갔다. 큰이모가 옆에 있었다.

엄마는 7남매 중 장녀였고, 큰이모는 둘째였다. 두 사람은 나이가 들어 자매보다 친구에 가까워져 있었다. 그녀 곁에 이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출근길 마음이 조금 가벼웠다.

다음 날도 반차를 냈다.

수술 첫 타임이었다.

아침 9시가 되기도 전에 이동침대가 왔다. 엄마는 그 위에 누웠다.



누워 있는 엄마는 작아 보였다.

늘 서 있던 사람. 부엌에 서 있고, 현관에 서 있고, 마트 계산대 앞에 서 있고, 제사상 앞에 서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나는 짧게 인사했다.
이모도 옆에서 말을 건넸다.
어머니는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나와 이모는 밖에 앉았다.
각자의 휴대폰을 보다가, 짧은 말을 주고받다가, 다시 모니터를 봤다.

수술 전.
수술 중.
회복 중.

몇 글자가 바뀌는 것을 그렇게 오래 바라본 적이 있었나 싶다.

뒤에 들어간 사람이 먼저 나왔다.
엄마는 한참 뒤에야 나왔다.

하반신 마취에, 상반신은 수면으로 했다고 했다. 수면이 잘 깨지 않아 기다렸다고 했다.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어집니다>

홍보팀장의 '브런치' 마흔여덟 번째 이야기

브런치는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입니다.

48

병실로 올라가는 내내 어머니는 깨지 않았다. 이동 간병사가 흔들어도 기척이 없었다. 침대로 옮긴 뒤에도 눈을 뜨지 못했다.

간호사가 다가왔다. 조금 심하다 싶을 만큼 어깨를 흔들었다. 큰소리로 이름을 불렀다.

그제야 엄마는 눈을 반쯤 떴다가 감았다. 다시 떴다가 감았다.

아직 수면이 덜 깨서 그렇다고 했다. 보호자가 계속 말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잠들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간호사가 나가자 이모가 엄마를 불렀다.

"언니야. 언니야."

자매가 늙으면 언니라는 말도 조금 어린 말처럼 들린다. 어릴 때부터 불러온 이름이라서 그런가. 그 말만은 세월을 덜 먹는 것 같았다.

"언니야, 들리나."

엄마는 열 번에 한 번쯤 눈을 뜰까 말까 했다. 그래도 들리냐는 말에는 아주 조금 고개를 끄덕였다. 한 5도쯤.

그 작은 끄덕임이 뭐라고, 나는 마음이 놓였다.

이모가 다시 말했다.

"언니야, 정신 차리봐라. 동하 일하러 가야 한다."

그제야 나도 한마디 했다.

"엄마, 정신 차리라이. 내 출근한다. 들리제."

엄마는 겨우 고개를 움직였다.
그게 대답이었다.
내 말이 들린다는 뜻.
가도 된다는 뜻.
걱정 말라는 뜻.

아니, 어쩌면 아무 뜻도 아니었을지 모른다. 그저 아직 덜 깬 몸이 겨우 한 움직임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그 작은 고갯짓을 엄마답다고 생각했다.

수술을 하고도, 마취가 덜 깨고도, 몸에 힘 하나 없어도, 자식 출근 걱정은 하는 사람. 자기가 아픈 와중에도 누가 불편할까 봐 먼저 살피는 사람.

나는 이모에게 잘 부탁드린다고 말하고 병원을 나왔다.



퇴근길에 다시 들렀을 때, 엄마는 몸에 무언가를 치렁치렁 달고 있었다.

수액줄.
배액관.
압박기.
환자복.

그런 것들을 달고도 정신은 말짱해져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어머니가 말했다.

"언능 집에 가서 밥 먹지, 뭐 한다고 왔노. 들어가라."

그 말에 웃음이 났다.
그리고 조금 울고 싶어졌다.

수술이 끝나도 엄마는 엄마였다. 환자가 되어도 보호자처럼 말하는 사람. 침대에 누워서도 내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 자기 다리보다 자식 밥을 먼저 말하는 사람.



엄마는 그렇게 2주를 입원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수술은 끝났지만, 회복은 또 다른 시작이었다. 걷는 연습을 해야 했고, 통증을 견뎌야 했고, 다시 자기 다리를 믿는 법을 배워야 했다.

나는 아직도 그 문자를 생각한다.

그래도 무섭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는다.

엄마가 평생 강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무섭다고 말했기 때문에 오래 남는다.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어집니다>

홍보팀장의 '브런치' 마흔여덟 번째 이야기

브런치는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입니다.

나는 엄마가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다. 아니, 정확히는 엄마의 무서움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의 걱정은 늘 우리 쪽을 향해 있었고, 통증은 늘 그녀 안쪽에 있었으니까.

자식은 자라면서 엄마를 자주 오해한다.

엄마는 원래 참는 사람이라고.
어머니는 원래 해내는 사람이라고.
당신은 아파도 밥을 차리고, 겁이 나도 괜찮다고 말하고,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아니었다

엄마도 무섭다.
엄마도 아프다.
엄마도 수술실 문 앞에서는 마음이 작아진다. 엄마도 누군가 손을 잡아주면 좋겠는 사람이다.

그걸 아는 데 나는 너무 오래 걸렸다.

이제는 엄마가 덜 참았으면 좋겠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무서우면 무섭다고 말하고,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말하고,
도와달라고도 자주 말했으면 좋겠다.

제사보다 자기 무릎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 자식 밥보다 자기 통증을 먼저 말했으면 좋겠다. 퇴근길에 들른 내 손에 반찬을 쥐여주기 전에, 오늘은 다리가 좀 아프다고 먼저 말했으면 좋겠다.

엄마가 오래 보호자로 살았으니,
이제는 조금 환자여도 좋겠다.
늘 돌보는 사람이었으니, 이제는 조금 돌봄을 받아도 좋겠다.

그래도 무섭다.

나는 그 말을 오래 기억하려 한다.
엄마가 약해서 한 말이 아니라,
엄마도 한 사람이라서 한 말이라는 걸.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말해주고 싶다.

무서워도 괜찮다고.
엄마가 무섭다고 말해줘서 나는 이제야 엄마를 조금 더 알게 됐다고.

당신은 평생 우리를 지킨 사람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조금 당신 곁에 서 있어도 된다고.

▼ 집에서 자전거로 열심히^^





브랜드 이야기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원고모집

직원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담는 공간으로 운영중입니다.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있었던 일뿐 아니라,
일상 속 소소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
사진 한 장, 짧은 글 한 줄도 모두 환영합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 주세요.
직접 참여해 주신 직원분들께는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소정의 사은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원고는 **매월 25일까지 홍보팀**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원고료에 해당하는 사은품은 **당월 응모량 및 글 내용을 반영**하여 브랜딩실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합니다.

오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날을 **추억**합니다.

공유하는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제49호 월간소식지

발행일 2026년 05월 29일
편집인 브랜딩실
발행처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http://www.snh.or.kr